

향약명 어휘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은규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국어학 전공
eglee@cu.ac.kr

- I. 머리말
- II. 향약명의 개념과 어휘 범주
- III. 대상 문헌과 연구 영역
- IV. 연구 현황
- V. 향약명 어휘의 DB 구축
- VI. 앞으로의 과제
- VII. 맺음말

I. 머리말

‘향약명’을 간단하게 말하면, 현존 최고(最古) 의서인 『향약구급방』에 서부터 『향약집성방』¹⁾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거르지 않고 간행된 의서에 기록된 약재명을 말한다. 이처럼 뚜렷한 어휘 범주를 형성하는 향약명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먼저 향약명의 개념과 어휘 범주를 설정해보고, 향약명이 실려 있는 대상 문헌을 살펴본다. 그리고 향약명 어휘를 대상으로 어떤 연구가 가능한지 일별해본 뒤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거시적으로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향약명 어휘 DB 구축의 실제 과정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정리한다. 이 글의 초점은 이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다.

이 글은 국어학적 입장에서 고찰하는 데 머물기로 한다. 국어학 안에서도 어휘론의 지평에서 향약명 어휘를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시종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어학의 여타 분야나 서지학, 한의학, 의사학(醫史學) 그리고 자연과학 영역의 분석결과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필자의 이해 능력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거니와 다 다룰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향약명 어휘 연구는 이들 학문 분야와 함께 학제 간 연구를 이루어야 체계가 반듯이 서는 것은 물론, 특성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II. 향약명의 개념과 어휘 범주

국어학에서 향약명이라는 어휘군의 존재를 인식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그 특성이나 속성을 선명하게 말하기는 아직 쉽지 않은 듯하다. 그것은 하나의 어휘체계로 접근하지 않고 국어사 기술을 위한 재료로만 다루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휘론적 입장에서 향약명의 개념과 어휘 범주를

*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와 전통한국학연구센터가 ‘조선시대 물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학술회의(2014년 8월 27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1942년에 행림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최후의 차자표기 자료’(손병태, 1996: 9)인데,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의 향약명 어휘 분석은 다음 글로 미룬다.

설정하는 일부더 다시 해야 한다.

먼저 ‘향약명’이라는 개념어의 설정 근거부터 찾아보기로 한다.

- 1) ① ㉠ 雞冠 鄉名 雞矣碧叱 (『향구』 上7-4)²⁾
 - ㉡ 雞冠 俗云 雞矣碧叱 (『향구』 目50-8)
 - ㉢ 木斫 鄉名 所訖羅 (『농사직설』 1-10)
- ② 『향약구급방』, 『향약제생집성방』, 『향약채취월령』, 『향약집성방』
- ③ 향약성(鄉藥性)
- ④ 약재명

① ㉠은 한어명 ‘鷄冠’의 우리말이 ‘雞矣碧叱’(*닭의뺨, 맨드라미)이라는 기록이다. 여기의 지시어⁴⁾ ‘鄉名’에 근거하면 ‘향명’이라는 개념어 설정이 가능하다. 김두찬(1983: 12)에서는 ‘향명’을 “중국의 원한명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쉽게 부르던 그 약재의 차자표기에 의한 명칭”으로, 손병태(1996: 17)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총칭”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鄉’의 개념에 기댄 것이다. 하지만 ‘鄉名’은 약재명이 아닌 차자표기에도 사용되었다. ㉡은 농기구 ‘木斫’에 대응되는 우리말이 ‘所訖羅(씨레)’라는 기록이다. 그리고 ㉢처럼 ‘향명’과 같은 의미로 ‘俗云’이라는 지시어도 있음을 볼 때, ‘鄉名’이나 ‘俗云’ 등은 유개념보다는 ‘한어명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라는 뜻의 단순 지시어로 보는 것이 낫겠다.

②는 ‘향약’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의서명이다. 이전 시기에 ‘향약’이라는 개념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 ③ ‘향약성’은 ‘향약’으로 사용되는 약재의 약물학적 특성을 뜻하는 말로 현대 한의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어이다. 이에 ②, ③에서 ‘향약’이라는 개념을 분리·설정할 수 있다.

④ ‘약재명’을 개념어로 설정할 수도 있다. 포괄적인 범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전 시기의 어휘체계를 지칭해야 한다는

2) 주요 문헌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향구』(향약구급방), 『향채』(향약채취월령), 『촌구』/『촌가』(1571)(촌가구급방), 『동의』(동의보감), 『향집』(1633)/『향성』(1942)(향약집성방), 『제중』(제중신편), 『의종』(의종손익), 『방합』(방약합편), 『표준』(표준국어대사전). 대응되는 현대어는 『표준』의 것을 () 안에 표기한다.

3) 손병태(1996: 17)에서는 고려 때 간행된 이 책명을 ‘鄉藥’의 효시로 잡고 있다(김신근, 1987: 7 참조).

4) 이런 말들을 지칭할 수 있는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조성오(1983)를 따라 우선 ‘지시어’라 한다.

점과, 이전 시기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개념어가 아니라는 점, '향약명'이 이미 개념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이를 상위어로 세우기가 주저된다.

결국 '우리 약재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향약명'이라는 개념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의미 구조는 '[[향]약명]'이 아니라 '[[향]약]명'이 된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 약재의 이름'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식물·동물명과 상당 부분 겹치게 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향약명 어휘라는 범주 설정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의서'와 '처방에 사용된'이라는 제한을 두어 향약명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의서는 아니더라도 약재명이 등장하는 텍스트가 처방과 관련된다면 향약명 어휘로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향약명은 일차적으로 아래 2)와 같이 정의된다.

2) 향약명의 개념(1)

의서를 중심으로 한, 처방과 관련된 텍스트나 약재명 목록에 나오는 약재의 우리말 이름

그런데 2)에서는 '우리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향약명에는 고유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3)의 '감조'는 한어명을 그 음가대로 읽은 차용어이다. 대응되는 우리말이 없어서 한어명을 그대로 향약명으로 사용한 것이다.

3) ① 柑子 감조 濟衆 8:22~1

柑子 감조 醫宗 32~8

② 乳柑子 감조 東醫 2:18~5

乳柑子 유감 鄉名 鄉成 699-1

여기서 향약명 어휘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향약명 어휘는 방문과 목록의⁵⁾ 두 공간에서 제시된다.⁶⁾

5) '향약명 어휘를 모아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한 목록집'이기 때문에 '향약명 분류어휘집'이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만, 별개의 책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편의상 '목록집'이라 한다.

6) 언해문에서의 향약명은 방문의 처방 부분에 나타난다. “中風 [...] 舌不得轉 獨活(三兩) 竹瀝(몇진) 生地黃汁(各一升) 合煎取一升 [...] 보름 마자 [...] 혀를 놀이디 못흐거든 독활불회 석 량과 몇진과 신디황 줏디허 뿐 즈 각 혼 되와를 혼디 글혀 혼 되 드이든

4) 의서 방문과 목록에서의 향약명 제시

① 悉腫	本云	炮黧色	鄉救 中20~10
熊膽		与老	鄉救 目49~8
蚝虫	本名	蛄蜥	鄉救 目49~5
假蘇	鄉名	鄭芥	鄉採 十二月
鱧腸	一名	蓮子中	鄉採 二月
黃丹	又名	鉛草	鄉救 目50~8
遠志	又云	阿只草	鄉救 目45~2
代赭	卽	朱石	鄉集 77-16~
薺芎	俗云	蛇休草	鄉救 目45~4
薺芎	朱書	蛇避中	鄉採 三月
石韋	上層	石花	鄉採 二月
鱧腸	俗謂	旱蓮子	鄉採 二月
囊荷	鄉名亦同		鄉救 上12~5
② 細辛		죽도리풀불휘	醫宗 6~9
芥菜		갓 又云 계즈	東醫 2:29~
延胡	本名	玄胡索	醫宗 5~9
黃精		독땃불휘 一名 仙人飯	東醫 2:36~10
鱖魚		소가리 卽 錦鱗魚	醫宗 39~9

4①은 차자표기 자료이고, 4②는 한글표기가 나오는 자료인데, 한어 명과 향약명 사이에 ‘鄉名, 鄉名亦同, 本名, 本云, 俗云, 俗謂, 又名, 又云, 一名, 卽, 上層, 朱書’ 등 다양한 지시어가 나타난다. ‘鄉名’ 뒤에는 대개 고유어가, ‘本名, 本云’ 뒤에는 주로 동의어가 나타난다. ‘俗云, 俗謂, 又名, 又云’ 등은 이칭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朱書’와 ‘上層’은 『향채』에 만 사용된 것인데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음을 뜻한다(조성오, 1983: 7 참조).

지시어는 문헌별로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②처럼 ‘芥菜’의 향약명은 ‘갓’ 또는 ‘계즈’라는 뜻으로 ‘又云’을, ‘黃精’의 향약명은 ‘독땃불휘’인데 다른 말로 ‘仙人飯’이라 한다는 뜻으로 ‘一名’을 사용하고 있다.⁷⁾ 이들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약재의 이름이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그리고 동의어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향약명 어휘의 어원과 이칭 간의 의미관계를 밝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구급간이방』 1:24~25~)

7) 향약명이 표제어 한어명과 상관없이 나타날 때도 있다. 『향집』(권83 27~1-27~8)에는 ‘白花蛇’에 대한 긴 설명이 나오는데, 끝머리 27~6에 ‘白花蛇’와는 상관없는 ‘蝮蛇 鄉名 毒蛇’라는 기록이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면, 향약명의 기본적인 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된다.

5) 향약명 제시의 기본틀

X {鄉名 / 鄉名亦同 / 俗云 / 一云 / 本名……} Y {一名 / 本名……} Z

X는 한어명, Y는 고유어, Z는 이칭으로 대표된다. 흔히 ‘고유어 Y’만을 향약명 어휘로 인식한다. 하지만 한어명도 향약명 어휘로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향약명 어휘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즉, Y뿐만 아니라 Z와 X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포괄적 인식과 개념 설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시어가 바로 ‘鄉名亦同’이다. 한어명과 향약명이 동일하다는 뜻인데, 이는 한어명이 차용어로 정착되어 향약명으로 사용되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⁸⁾

이런 인식을 위해서 ‘단어족’ 개념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어떤 약재를 가리키는 여러 동의어 내지는 관련어를 묶는 단어족 개념을 도입하면 향약명 어휘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어휘 사나 어휘체계사 기술도 쉬워진다.

결국 약재로 쓰이는 사물이 있고, 그것을 지칭하는 명칭이 의서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들 모두를 넓은 의미의 향약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2)는 6)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6) 향약명의 개념(2)

의서나, 처방과 관련된 텍스트 혹은 목록에 나오는 약재를 가리키는 고유어나 한자어

향약명이라는 개념이 일찍부터 형성되어 많은 의서를 통해 전승되어 사용되었고, 현재도 쓰이고 있으므로 ‘향약명 어휘’라는 범주 설정이 가능하다. 이미 홍윤표(1985: 764-766)에서도 국어 어휘를 담고 있는 문헌자료를 거시적으로 분류하면서 ‘鄉名類’라는 범주를 설정한 바 있다. ‘醫書類’가 아닌 ‘鄉名類’라 한 것은 향약명 어휘의 범주 설정과 국어 어휘체계상의 위상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8) 『향구』에 ‘鄉名亦同’으로 표시된 향약명 어휘는 모두 5개이다. ‘乾蓮(中19-6), 囊荷(上12-5), 牛蒡(上12-10), 黃藥皮(中19-3), 茴香草(中17-3).

향약명 어휘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향약명 어휘는 일반적인 물명의 일부이다. 의서에 나타나는 약재명은 식물 명칭어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동물, 광물명이나 기타 순이다.⁹⁾ 따라서 향약명 어휘는 필연적으로 일반적인 물명과 겹치게 된다. 둘째, 향약명 어휘는 의서에 나타나는 어휘의 일부이다. 따라서 향약명 어휘의 특성을 밝히려 면 ‘의서의 어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시적 관점도 생각해야 한다. 의서는 일반 민중의 일상사를 담고 있고, 그 내용을 구성하는 어휘들도 대부분 일상어이다. 따라서 향약명을 포함한 의서 어휘들을 범주화할 수 있는 상위 개념어로 ‘일상어’ 또는 ‘생활어’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말 어휘체계에서 향약명 어휘가 차지하는 위상과 직결된다. 이 문제를 ‘재물’을 기본 개념으로 어휘를 분류한 홍윤표(2014: 9-36)의 논의에 맞추어보면 다음과 같다.

7) ‘才物’을 기준으로 한 어휘의 분류(三才[천·지·인] + 物)

- ① 종교류 :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민간신앙 등
- ② 인생(생활)류: 의식주 등
- ③ 자연류 : 천(天), 지(地)
- ④ 사물류 : 유정물, 무정물

7)과 같이 홍윤표(2014: 9-36)에서는 ‘재물’을 기준으로 어휘를 분류하는 장점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①-④ 각각을 다시 하위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분류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을 변별적으로 분명히 하기는 어렵다. 7)에 따르면 향약명 어휘는 ‘인생(생활)류’와 ‘사물류’에 걸쳐 있는 하위 범주에 해당한다.

Ⅲ. 대상 문헌과 연구 영역

알려진 의서 목록은 8)과 같은데¹⁰⁾, 최근 발굴된 자료도 있고, 필사본이

9) 『향구』의 경우 모두 154개의 차자표기가 나타나는데, 식물명 117개, 동물명 19개, 광물명 5개, 병명 7개, 기타 6개이다. 따라서 병명 7개를 제외한 147개의 약재명 중 79.6%인 117개가 식물명이다.

나 수진본도 있다. 앞으로 정확한 서지 사항과 향약명 어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의서 목록 작성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기존에 잘 알려진 것은 제외하고 비교적 최근에 새로 소개된 의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알려진 간행연도를 기준으로 순서를 삼았다).

8) 의서 목록

- 13세기 『향약구급방』 13세기 중엽, 1417
- 1398 『향약제생집성방』
- 1431 『향약채취월령』
- 1433 『향약집성방』 1478, 1488, 1633
- 1466 『구급방』
- 1489 『구급간이방언해』
- 1497 『신선태을자금단』
- 1499 『구급이해방』
- 1517 『창진방촬요』
- 1525 『간이벽온방』 1578, 1613
- 1538 『촌가구급방』 1571 이전
- 1541 『우마양지염역병치료방』 1578, 1636, 1644, 1755
- 1542 『분문온역이해방』
- 1571 『촌가구급방』
- 17세기 『본초정화』 17세기 초?
- 1607 『언해두창집요』
- 1608 『언해구급방』
- 1608 『언해태산집요』
- 1613 『동의보감』 1724, 1753, 1766, 1814, 1890
- 1613 『신찬벽온방』
- 1653 『벽온신방』 1724, 1727
- 1659 『주춘신방』
- 1663 『두창경험방』 1711
- 1682 『마경초집언해』 1720년대, 17세기 초
- 1690 『언해납약증치방』
- 1707 『치중비방부언해』
- 1790 『광제비급』

10) 의서 전반의 목록과 서지는 三木榮(1956), 김두중(1966), 김신근(1987) 등을, 국어사 분야에서 정리된 의서 목록은 홍윤표(1993), 이은규(1993: 4-8, 200-201), 김동소(2007: 357-42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간행연도는 김동소(2007: 357-420)을 참조한 것이다.

- 1799 『제중신편』
- 1801 『태교신기언해』
- 1850 『백병구급신방』 19세기 중엽
- 1860 『의종손익』 1868
- 1864 『두역신방』 1924?
- 1870 『구급신방』 1870 이전
- 1885 『방약합편』
- 1909 『단방신편』
- 1915 『의방신감』
- 1942 『향약집성방』

다음에 소개하는 의서는 아직 서지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판본과의 관계가 확연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 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발굴한 것인데, 센터에서는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이미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치중비방부언해』(1707)은 버클리대 리치먼드문고 소장 목판본으로 표제 및 내제가 『치중방』이다. 임언국(任彦國)의 『치중비방』에 허임의 『침구경험방』의 치중에 관련된 것을 덧붙여 만든 책이라 한다.¹¹⁾

『벽온방』(17세기?)은 버클리대 리치먼드문고 소장 목판본으로 20쪽 분량이다. 내제가 『벽온방』이고, 서문의 앞부분만 남아 있을 뿐 간기가 전혀 없다. 『간이벽온방』, 『벽온신방』, 『신찬벽온방』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초정화』(17세기 이후)는 한글 향약명이 기록된 필사본 의서이다. 간행 시기, 간행자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덕호 외(2005) 등에서 다루었지만 국어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경험방』(1663 이후)은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이다. 표제는 1권이 『경험방(건) 두창』, 2권은 『경험방(곤) 잡병』이다. 박진희의 『두창경험방』(판본)과 이의태의 『경험방휘편』(필사본)을 『경험방』으로 편집한 것이다. 겉면에 ‘前間恭作 소장본’이라는 표시가 있다. 2권 앞부분에 ‘萬藥名記’라 하여 향약명이 필사되어 있고, 본문은 ‘經驗方彙編’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¹²⁾

『경험신방』은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소장 필사본으로 표제명은 『杏林

11) 이 책의 서지사항과 국어학적 특징은 홍윤표(2012)가 참조된다.

12)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해제에서는 “경험방휘편”을 책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工程』이다. 1권은 ‘彙選集註藥性歌’라는 제목의 약재에 대한 기록인데, 약재마다 향약명을 한글로 기록하고 있으며, 2권은 398여 종의 처방문을 기록해두고 있다.

『광제비급향약오십종치법』(1790 이후)은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소장 필사본이다. 건권은 23개, 곤권은 27개의 약재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건권만 남아 있다. 1790년 이정화가 간행한 『광제비급』 권4 부분을 취하여 언해한 것이다.

이제 8)에 제시된 의서에 나타나는 향약명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가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향약명 어휘는 다른 어휘와 마찬가지로 국어학의 제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가능하다. 특히 음운 및 형태·어휘사 등 국어사 기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접근과 학제 간 공동 연구도 가능하고 필요하다. 향약명 연구의 영역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향약명 어휘 연구의 영역

(1) 직접적인 연구

① 공시적 접근

- 향약명 어휘 범주의 설정과 목록 작성
- 차자표기 자료를 대상으로 한 어형의 재구
- 형태 확정 및 형태소 분석
- 어휘 구성소의 의미 분석 및 어원론적 기술
- 이칭 간의 의미관계 기술
- 분류체계의 성격 규명과 어휘체계의 설정

② 통시적 접근

- 음운사 및 형태사 기술
- 개별어휘사 및 어휘체계사 기술

③ 방언학적 접근

- 전통적으로 쓰이는 실제 현장의 약재명과 방언형의 채집 정리
- 문헌어와 방언형의 비교 분석

④ 20세기 어휘로의 정착과정에 대한 기술

- 20세기 이후 다양한 어휘로 분화한 과정과 의미관계망의 기술
- 『표준국어대사전』에 어떻게 수렴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술
- 남북한 향약명 어휘 정리의 양상과 그 비교 분석

(2) 간접적인 연구

① 의서와 관련된 연구

- 의서의 어휘체계와 성격 분석

- 병명, 약명, 분류사 등 의서 어휘체계 내에서의 주제별 연구
- 의서의 구분상의 특성과 생활어문으로서의 속성 분석
- 동식물 명칭어 연구와의 관련성
- 차자표기와 한어명을 대상으로 한 한자음 분석

② 학제 간 연구

- 서지학 분야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의학사 및 한의학의 본초학 분야와의 공동 연구가 접목되어야 함.
- 식물·동물·광물학 등 관련 학문 분야와의 공동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 역사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의 의학과 의서의 연구가 필요함.
- 한문(법)학이나 번역학적 측면에서의 공동 연구

연구 영역을 크게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눈 것은 국어학적 접근에 바탕한 분류인데, 더 세분화된 연구 영역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향약명 어휘 형태의 확인은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집적되었으므로, 어휘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향약명 어휘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간접적인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IV. 연구 현황

여기서는 국어학 분야에서 '향약명 어휘'를 직접 다룬 논의만 다루기로 한다. 그 외 의서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한다.

1. 차자표기 자료의 해독

『향구』의 서지에 대한 언급으로 가장 빠른 것은 橘井清五郎(1936)이다. 이후 이기문(1963)을 거쳐 본격적인 해독은 홍순탁(1964)에서 시작되어 최범훈(1976), 남풍현(1986), 이은규(1993) 등으로 이어진다. 홍순탁(1964)는 접미사 '-밤, -이', 유기한자음 표기 '-次-', '乃, 良'의 해독 문제 등을 다루었다. 최범훈(1976a, b, c)은 '방중향약목초부'에 '俗云'으로 표시된 119종을 뽑아 해독하였다. 이 책의 차자표기를 전면적·체계적으로 다룬 것은 남풍현(1986)에서이다. 판독을 정밀하게 하고, 연역적으로 세운 차자표기법의 원리에 따라 용자마다 분석한 뒤에 15세기 후대형에

맞추어 해독한 것으로 대표음의 전용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은규(1993)은 용자례를 기반으로 고대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맞게 재구하려 한 것인데, 동일 문헌에 쓰인 용자를 하나의 음가로 고정하여 읽고 있다. 이은규(1995)는 차자표기에 사용된 한자의 용자례를 만든 것이다. 한의학 분야의 연구로는 전문을 현대 활자화하고 의사적 의미를 다룬 신영일(1995)와 ‘방중향약목초부’의 향약명을 고찰한 이덕봉(1963)이 있는데, 후자는 약재명별로 학명을 밝히고 ‘渡來考’도 기술하고 있다.

『향채』의 차자표기 해독은 오구라신페이[小倉進平](1933)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고, 남광우(1962)에서는 61개의 어사를, 방중현(1963)에서는 47개를 해독하였다. 조성오(1983)은 남풍현(1981)의 차자표기 원리에 맞추어 전체 향약명을 해독하고 표기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손병태(1994)는 한어 이침까지 포함하고 방언자료를 이용하여 어원을 추정하고 형태 분석을 하였다. 김홍석(2001, 2002, 2003)은 이 책의 차자표기를 다시 해독한 것이다.

『춘구』는 홍재휴본과 성암문고본이 있는데, 안병희(1978)과 손병태(1990)은 성암문고본의 차자표기를 다룬 것이다. 이은규(1994b)는 홍재휴본을 학계에 소개하면서, 성암문고본의 차자표기와 비교 분석하였다.

『향집』의 차자표기 해독은 김두찬(1983)에서 전체 항목에 행림서원본의 자료를 추가하여 252개 항목을 차자표기법의 원리에 맞추어 해독하였다. 남풍현(1999)에서는 동경대본의 차자표기와 비교하면서 261개의 전체 향약명을 다시 해독·정리하였다. 아울러 『향구』와 『향채』의 차자표기와도 비교하고 있어서 차자표기 향약명의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준다.

『우역방』의 향약명은 안병희(1977)에서 주로 차자표기 자료를 다루었고, 손병태(1989)에서는 차자표기 이외의 향약명 목록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은규(2004)는 소창문고 필사본을 비롯한 이본의 서지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이 밖에 민은숙(1982)는 『향집』에서 86개, 『향구』에서 22개의 향약명을 가려서, 방언형을 참고하여 다른 해독을 시도한 것인데, 『향집』의 향명 7개가 16세기 이후 소실되었음을 밝혔다.

2. 차자표기 관련 연구

이은규(1994a)는 향약명 차자표기를 해독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한 것인데, 13세기 어형과 15세기 어형의 동질성과 이질성, 해독과 재구, 대립모음설, 모음추이 문제 등을 다루었다. 이은규(1996)은 차자표기법의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 두 문헌 이상에 표기된 것을 가려, 표기방식이 달라지는 양상을 분석한 것인데 『향채』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석독자가, 이후에는 음독자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3. 어휘론적 분석

유재영(1985)은 『구급간이방언해』의 향약명을 고유어 유지형과 한자어 교체형 등으로 나누고, 풀이형도 제시하고 있다. 김중학(1988)은 의서 12종에서 292개의 어휘를 추출하여 『동탕』의 분류기준으로 나누고, 문헌별로 출현 형태를 기술한 뒤에 음운사적 현상과 형태 어휘론적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의미 축소, 확대, 분화를 기술한 점이 특징적이다. 김중학(1992)에서는 292개의 어휘가 문헌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도표화하였다.

이철용(1992a)에서는 향약명 어휘를 대상으로 표기법, 음운변화 현상을 주로 다루었다. 어휘론적으로는 유의어 간 교체, 한자어의 귀화어와, 새로운 말로의 교체 등을 다룬 점과 『동탕』의 이본에 대해 고찰한 점이 특징적이다.

손병태(1996)은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어휘론적 향약명 연구이다. 239종의 어휘를 대상으로 해독과 변천과정을 기술하고, 표기에 반영된 음운현상을 정리하였다. 또 형태적 복합어와 통사적 복합어로 나누어 형태소 분석을 세밀하게 하고, 각종 표지어를 추출하였다. 또 의미관계를 고려하여 향약명의 명명법까지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등 어휘론적으로 폭넓은 연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약재를 취급하는 현장의 어형을 채집하여 반영하려 한 점도 주목된다.

김문오(2000)은 『동탕』의 향약명의 형태소를 분석한 뒤에 구성방식을 분류한 것인데 접두사와 접미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어 의미론적 유연관계까지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강유리(2004)는 『구급간지방언해』와 『동당』 및 『대역 동의보감』의 어휘를 비교한 것으로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와 형태소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이은규(2009)는 『향구』의 향약명이 현대 국어까지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살핀 것이다. 그 유형을 음운체계의 변화만 반영하는 ‘어형 변화’와 새로운 어형의 생성과 공존·소멸 관계 등을 보이는 ‘어형 교체’로 나누고 후자에 해당하는 어휘 59개를 분석하였다. 이 작업은 개별어휘사와 어휘체계사 기술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또 변천의 경향을 통계자료로 제시했는데, 20세기에 와서 새로운 어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신전희 외(2006)은 『향집』에 나오는 약재에 대한 종합 해설서이다. 부록으로 제시된 ‘향명의 시대별 변천 일람표’와 ‘향약집성방에 수록된 한약의 이명과 출전은 일부 문헌만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향약명 연구에 참고가 된다.

4. 향약명 관련 어휘 연구

손병태(1992)는 경북 동남방언의 산채류명을 조사·기술한 것으로, 방언형을 향약명 연구에 이용하려는 취지의 연구이다. 문헌상의 형태와 다른 방언형을 소개한 점이 눈에 띈다.¹³⁾ 이정미(2002)는 번역된 『향집』을 대상으로 남북한 한의학 전문용어를 비교한 것이다. 박지연(2011)은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의서에 한약명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통계 처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신중진(2012, 2013, 2014)의 작업은 곡물명 어휘에 대한 개별어휘사와 어휘체계사를 기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경재전집』의 ‘稻벼’ 곡물명과, 각종 분류어휘집의 곡물명을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연경재전집』 잡곡명의 어휘체계사 기술을 시도하였다.

이 밖에 개별어휘사나 어원론적 분석도 있다. 김원표(1948, 1949a,

13) 예를 들면, 『향채』에 가장 먼저 나오는 ‘小薊’의 향약명은 ‘曹方居塞’인데, 이의 영덕 지역 방언형으로는 ‘조뱅이·자라귀·조바리·쫓바리·조병이·조방가새·납거새·떡채·버꼭채’ 등이 있음을, 또 ‘왕고들배기’의 방언형으로는 ‘사라구·수애똥·왕고들배기·방가지똥’ 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b)는 ‘벼’, ‘쌀’, ‘누에’, ‘보리’의 어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것이다. 현평효(1968)은 ‘나물’에 대응하는 제주도말의 어원을 추정한 것으로 ‘*ㄴ’를 기저 어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병근(2004)는 개별어휘사로서 ‘질경이(車前草)’, ‘마름(菱仁)’, ‘고양이(猫)’ 등에 대해 문헌과 방언에서 관련 형태를 찾아 형태 의미적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로 ‘양귀비’를 다룬 황선엽(2008)과 ‘가물치’와 ‘도토리’를 다룬 홍윤표(2009)가 있다.

5. 한자음 분석

성환갑(1981)은 『창진방촬요』의 한자음을, 윤장규(2004)는 『향채』의 차자표기 한자의 음가를, 최중호(2008)은 『언해태산집요』의 약재명에 반영된 한자음을, 최미현(2009)은 『동탕』의 어휘에 반영된 한자음을 분석한 것이다.

6. 서지학 및 의사학

서지학에서의 의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원전학회 등에서 한의학·의사학적 측면에서 의서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본초정화』를 예로 들면, 김홍균(2011)은 의사학적 입장에서 서지 분석을 한 것이고, 이덕호 외(2005)는 초부의 향약명, 권영배 외(2005)는 인부의 향약명을 다루었다. 이런 유형의 연구는 개별 의서를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본초학적 분석이 중심이다.

7. 정리

국어학 영역에 한정해서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향약명 어휘의 연구는 차자표기의 해독과 일부 어휘의 변천과정 기술, 형태 분석 시도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약명 어휘를 국어사 기술을 위한 낱말의 자료로만 인식함으로써 앞선 시기의 차자표기 연구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향약명 어휘에 대한 어휘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국어학적 연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의서 연구도 마찬가지로여서 향약명 어휘보다 일반적인 회귀어를 찾는 데 주력하였다.

결국 향약명 어휘를 ‘하나의 어휘체계’로 설정하고 어휘론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형태·의미 분야의 연구가 미흡하게 되었고, 개별어휘사나 어휘체계사의 기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런 점은 아직 제대로 된 ‘향약명 어휘 DB’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현대 국어로 올수록 이칭이 많아지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보다 기존에 알려진 어휘들에 대한 연구가 반복되는 것도 결국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학제 간 연구 역시 관련되는 학문 분야가 향약명 어휘에 대한 관심을 모두 각자의 학문적 성격 내에만 두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동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V. 향약명 어휘의 DB 구축

향약명 어휘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DB의 구축이다. ‘있어온 연구의 성과’를 반영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DB를 구성·구축해야 한다. 여기서는 ‘향약명 DB’를 자료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DB는 향약명 어휘의 변천 양상을 밝히고자 한 이은규(2009)의 작업을 위해 구축된 것으로 미완성이다. 이은규(1993: 6-8)에 제시된 문헌, 즉 1차 자료인 의서 20종과 2차 자료인 물명류·사전류 등 기타 26종에서 향약명을 추출하여 만든 것이다.

향약명 어휘 DB의 기본 성격과 구축과정의 작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10), 11)과 같다.

10) 향약명 어휘 DB의 성격

‘있어온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DB

- ① 향약명 어휘 범주에 드는 모든 어휘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 ② 개별 향약명 어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야 한다.
- ③ 정보화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④ 통시적 변천과정을 일람할 수 있어야 한다.

11) 향약명 어휘 DB 구축과정

- ① 대상 문헌의 확정 - 향약명 어휘가 기록된 모든 문헌 목록 작성
 - ㉠ 1차 자료: 의서
 - ㉡ 2차 자료: 물명류, 자전류, 사전류 등 관련 문헌
- ② 향약명 어휘자료의 관독·채집
 - ㉠ 차자표기 및 한글표기 자료의 정확한 관독
 - ㉡ 향약명 어휘의 채록
 - 모든 의서의 방문과 목록집에서 채집
 - ‘一名’, ‘一云’ 등으로 나타나는 이칭 집적
 - ㉢ 2차 자료에서 동일 한어명 추적하여 대응 향약명 채집
 - ㉣ 2차 자료에서 동일 향약명 추적하여 대응 한어명 채집
- ③ 입력
 - ㉠ 입력 필드 설정
‘한어명’, ‘차자표기’, ‘한글표기’, ‘이칭 정보’, ‘분류 항목’, ‘학명’, ‘원산지’, ‘서지 정보’, ‘형태소 분석 정보’, ‘기타’
 - ㉡ 한어명을 기준으로 입력
 - ㉢ 하나의 항목에 이칭이 여러 나올 때는 별개의 항목으로 분리 입력
 - ㉣ 분류 항목과 학명 그리고 원산지 정보 입력
 - ㉤ 행수까지 표시되는 정확한 서지 정보 입력
 - ㉥ 정확한 형태소 분석결과 입력
 - ㉦ 한자음과 같은 기타 정보 입력
- ④ 입력자료의 교정
- ⑤ 1차 소트: 한어명 기준
- ⑥ 2차 소트: 대응 향약명 기준
- ⑦ ⑤⑥을 바탕으로 동일 향약명 모으기 작업(단어족 구성): 정보화된 DB
- ⑧ 개별 향약명 어휘별로 시대별 정리 소트: 한어명 기준

향약명 어휘는 모든 의서에서 빠짐없이 추출해야 한다. 앞선 시기 의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후대 의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자료도 중요한데, 의서와 동일한 어휘는 물론 특정 시기 의서에 보이지 않는 향약명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의 정확한 관독은 형태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두말할 필요도 없다. ‘一名’류로 표시되는 이칭자료도 중요하다. 주로 한어명이지만 개별 향약명 어휘의 의미관계를 기술하는데 필수적이다.¹⁴⁾

14) ‘黃精’을 예로 들면, 『동탕』의 정보는 ‘黃精 독덧불취 一名 仙人飯(2:36-10)’이다. 그런데 『표준』에서는 ‘仙人飯’을 ‘등굴레’와 동의어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등굴레의 한어명은 ‘倣糝’로 『향채』에 ‘豆應仇羅’로 처음 나타난다.

입력 필드 설정에서 ‘차자표기’와 ‘한글표기’를 구분하였는데, ‘향약명 DB’의 최종 목적이 통시적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하나의 필드에 입력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형태소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필드도 필요한데, 단어 구성법과 어원론 연구 및 미분석 자료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칭들은 한어명과의 대응관계가 드러나도록 정렬하기 위해서 별개 항목으로 분리·입력해줄 필요가 있다. 최종 결과물은 ⑦의 단어족 구성하기와 ⑧의 변천과정 적용 정렬 작업이 완료된 ‘정보화된 DB’이다.

이제 실제 11)의 일부 과정을 거쳐서 구축된 ‘향약명 DB’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DB는 ‘분류 항목’, ‘형태소 분석 정보’, ‘원산지’ 등 많은 필드가 입력되지 않았으며, ‘차자표기’와 ‘한글표기’를 같은 필드에 입력한 것이다. 11)의 ⑤와 ⑥까지의 작업결과를 각각 12)와 13)에서 맨 앞부분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예시 1] : 한어명 기준 정렬 : 11) ⑤까지 작업한 결과

[Ⅱ]	大德 []	俗云 鄉救 中22~1
家狸	괴 猫	一名 東醫 1:51~2
假蘇	鄭芥	鄉名 鄉採 十二月
假蘇	荊芥	一名 鄉採 十二月
假蘇	鄭芥	村救 4~5-2
假蘇	鄭芥	鄉名 村家
假蘇	鄭介 덩가	鄉名 村家
假蘇	鄭芥	鄉名 鄉集 85-11~
假蘇	鄭芥 정가	鄉名 鄉成 713-2
假蘇	형개	東辭 15
訶子	訶黎勒	一名 醫宗 25~2
茄子	가지	東醫 2:33~8
茄子	가지	濟衆 8:23~6
茄子	가지	醫宗 30~6
茄子	가지	鄉名 鄉成 716-3
癩	瘰[]癩	鄉救 下36~7

13) [예시 2] : 향약명 기준 정렬 : 11) ⑥까지 작업한 결과

防風	[Ⅱ]菜	鄉名 村家
馬夜目	[]馬脚內如 []	鄉救 上13~2
胞衣	[]卅音	鄉救 下34~9

竹瀝	[]靑竹[]汁	鄉救 中28-7
藍染	加[]伊	村救 4-10-3
藍藤根	가스새	東醫 2:43-7
升麻	가쌍두릅	物名 90
比目魚	가즈미	濟衆 8:20-1
比目魚	가즘미	醫宗 41-1
鵲蒜	가즈마늘	山經 568
山茨菰	가취무릇	東醫 3:23-6
慈菰	가취무릇	醫宗 6-4
白鴛膏	家居有 흰거위의기름	鄉名 鄉成 671-1
沙蔘	加德	鄉名 鄉採 二月
沙蔘	加德	鄉名 東京 78-29-1
沙蔘	加德 더덕	鄉名 鄉成 613-3

12)는 한어명을 기준으로 정렬한 것이다. 향약명이 한어명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고, 검색할 때에도 먼저 한어명을 단서로 찾기 때문에 이 정렬이 필요하다. 그리고 1차 정렬에 이어 개별 어휘별로 간행연도를 기준으로 2차 정렬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표기나 형태가 변화한 양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3)은 향약명을 기준으로 정렬한 것인데, 같은 형태의 향약명 자료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기 때문에 개별 향약명과 관련된 어휘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데 유용하다.

다음으로 11)의 ⑦과 ⑧까지 작업을 마친 ‘정보화된 DB’를 제시하면 아래 14)와 같다.

14) [예시 3] : 정보화된 DB : 11) ⑦, ⑧까지 작업한 결과

① []	大德[]	俗云 鄉救 中22-1
② 家狸	괴 猫	一名 東醫 1:51-2
③ 假蘇	鄭芥	鄉名 鄉採 十二月
假蘇	荊芥	一名 鄉採 十二月
假蘇	鄭芥	村救 4-5-2
假蘇	鄭芥	鄉名 村家
假蘇	鄭介 덩가	鄉名 村家
假蘇	鄭芥	鄉名 鄉集 85-11-1
假蘇	鄭芥 정가	鄉名 鄉成 713-2
假蘇	형개	東辭 15
薑芥	형개	東辭 40

荊芥	假蘇	一名 鄉救 目49ㄱ2
荊芥	덩가	救簡 1-19ㄱ
荊芥	덩개	山經 505
荊芥	형개	馬抄 上92ㄴ
荊芥	형개	痘經 17ㄱ
荊芥	형개	諺胎 59ㄴ
荊芥	형개	諺痘 上14ㄱ
荊芥	덩가	東醫 2:32ㄴ4
荊芥	덩가	濟衆 8:3ㄴ4
荊芥	덩가	物名 71
荊芥	덩가	醫宗 9ㄱ9
荊芥	假蘇	本名 醫宗 9ㄱ9
荊芥	덩가	方合 275
荊芥	假蘇	本名 方合 275
荊芥	형개	東辭 983
荊芥	가소	東辭 983
荊芥	강개	東辭 983
荊芥穗	덩갓이삭	救簡 2-65ㄴ
荊芥穗	덩가이삭	諺胎 39ㄱ
芥	계죽개	訓字 上14ㄱ ¹⁵⁾
芥	芥菜	俗稱 訓字 上14ㄱ
芥	덩가	訓字 上14ㄱ
芥	荊芥[一名 假蘇]	訓字 上14ㄱ
④ 訶子	訶黎勒	一名 醫宗 25ㄱ2
⑤ 茄子	가지	東醫 2:33ㄱ8
茄子	가지	濟衆 8:23ㄴ6
茄子	가지	醫宗 30ㄴ6
茄子	가지	鄉名 鄉成 716-3
落蘇	茄子	本名 鄉救 目49ㄱ3
落蘇	茄子根	鄉救 中18ㄴ2
⑥ 癩	瘰[]癩	鄉救 下36ㄴ7
⑦ 蝎	전갈	東醫 2:15ㄱ10
⑧ 葛	흄	訓字 上9ㄱ
葛	흄	新類 上8ㄱ
葛	흄	詩諺 物1ㄱ
葛	흄	物名 75
葛	흄	字釋 319

15) 실제로 『訓字』에는 ‘芥 계죽 개 俗稱 芥菜 又 덩가 荊芥 一名 假蘇’로 되어 있다.

葛	칙 측 葛藤	植彙 221
葛根	叱乙根	俗云 鄉救 目46ㄱ1
葛根	叱乙[]夫乙田仲	鄉採 四月
葛根	츄불휘	救急 下4ㄱ
葛根	츄불휘	救簡 1-113ㄴ
葛根	츄리블희	山經 522
葛根	갈근	痘經 14ㄴ
葛根	갈근	諺痘 上13ㄴ
葛根	츄불휘	東醫 3:1ㄴ6
葛根	츄불휘 마ㄴ	牛染 8ㄴ
葛根	츄블희	新荒 補3ㄱ
葛根	츄블희	諺臘 9ㄱ
葛根	츄불휘	濟衆 8:3ㄴ1
葛根	츄불휘	醫宗 18ㄴ7
葛根	츄불휘	方合 299
葛根	츄뿌리	鄉名 鄉成 615-1
葛根	츄뿌리 칩	東辭 860
葛藤	츄너출	訓字 上9ㄱ
葛藤	츄	方類 四23ㄴ
葛藤	츄리	物譜 11
葛藤	칩 달근 츄 칩덩굴	植名 233
葛粉	츄부히 마ㄴ	山經 241
葛粉	츄뿌리가루	鄉名 鄉成 615-2
乾葛	간갈	諺胎 46ㄴ
乾葛	건갈	簡辟 7ㄱ
乾葛	츄불휘	辟新 2ㄱ
赤葛根	적갈불휘	救急 下21ㄴ
生葛根	싱츄불휘	救簡 2-93ㄴ
生葛根	싱갈근	分瘟 26ㄱ
生葛根	닐츄불휘	分瘟 26ㄱ
⑨ 葛上亭長	靑加乙畏 청갈외	鄉名 鄉成 691-1
班猫	加乙畏	鄉名 鄉採 九月
班苗	靑加乙外	村救 4ㄱ2-3
班苗	靑加乙外 청갈외	鄉名 村家
斑猫	갈외	東醫 2:14ㄴ4
斑猫	갈외	濟衆 8:11ㄱ9
斑猫	갈외	醫宗 37ㄴ10
斑猫	加乙畏 갈외	鄉名 鄉成 692-1
芫靑	청갈외	東醫 2:14ㄴ7

⑩ 蚶	살조개	東醫 2:12-1
⑪ 甘菊花	강성황	東醫 2:37-1
菊花	강성황	濟衆 8:10-7
菊花	감국	醫宗 10-14
菊花	국화	鄉名 鄉成 602-3
菊花	강성황	鄉名 鄉成 602-3
菊花水	구화피기미티셔나는물	東醫 1:15-2
菊花水	菊英水	東醫 1:15-2
菊花水	국화포기밑에서나는물	鄉名 鄉成 958-2
⑫ 甘爛水	만히동당이터거품진물	東醫 1:16-10
甘爛水	동딩이쳐거품진물	醫宗 47-8
甘爛水	만히흘러다러서떠오른거품	鄉名 鄉成 599-2
⑬ 柑子	감즈	濟衆 8:22-1
柑子	감즈	醫宗 32-8
乳柑子	감즈	東醫 2:18-5
乳柑子	유감	鄉名 鄉成 699-1
⑭ 甘草	國老	一名 醫宗 1-8
⑮ 甘蕉根	파초뿌리	鄉名 鄉成 632-3
芭蕉根	반초불휘	東醫 3:20-6
芭蕉	반초불휘	醫宗 11-10
⑯ 甘苔	단늬기	醫宗 21-1
船底苔	뱃밑에끈잇기	鄉名 鄉成 625-2
井中苔及萍	우물속의잇기	鄉名 鄉成 625-3
⑰ 蜨蟬	물종구우리	東醫 2:15-3
蜨蟬	馬叱同仇火乃 말뚝굴이	鄉名 鄉成 693-2
⑱ 江籬	궁궁이삭	東辭 41

14)는 자료를 입력해서 정렬만 하는 단순한 자료 추적 DB가 아니라, 단어족 개념을 적용한 '정보화된 DB'이다. 이런 DB의 필요성을 ③의 '假蘇'와 '荊芥'를 예로 하여 살펴보면, '假蘇'와 '荊芥'는 동일 식물이다. 차자표기 '鄭芥'는 *덩개'로 재구되고 근대국어 시기에는 '정개'로 불렸다. 이른 시기에 '假蘇'와 대응되는 우리말 '鄭芥'가 쓰였지만 후대에는 주로 한어명 '荊芥'가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假蘇', '荊芥', '鄭芥'를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DB가 필요하다. 11)에 따르면 '假蘇'는 맨 앞에, '荊芥'는 거의 끝부분에 나타나는데, 한자리에 모아 같은 단어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 어휘와 관련된 어휘나 정보를 덧붙이는 작업을 한다. 즉, '荊芥穗 덩가이삭'과 다른 정보를

말해주는 『훈몽자회』의 ‘芥 계죽 개, 俗稱 芥菜 又 덩가 荊芥 一名 假蘇’까지 덧붙인다(작업 ⑦). 마지막으로 동일 한어명별로 시대순에 따라 다시 정렬해야 한다(작업 ⑧).

그런데 이런 작업은 개별 어휘가 가진 어휘론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어렵다. 14)의 각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⑤ ‘茄子’와 ‘落蘇’는 ‘茄子’가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落蘇’를 옮겨 오는 것이 효율적이다. ⑧은 ‘葛’이나 ‘葛根’을 중심에 놓고 이와 관련된 어휘인 ‘葛藤, 葛粉, 乾葛, 赤葛根, 生葛根’ 등을 함께 제시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⑨의 ‘葛上亭長’과 ‘芫青’은 ‘斑猫’ 항목으로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다. ‘청갈 외’는 ‘斑猫’의 향약명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葛上亭長’과 ‘芫青’은 생소하기 때문이다. ⑩ ‘蚶’은 ‘조개’가 결합된 향명은 여럿 나오지만, 한어명에 ‘蚶’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찾기 어려우므로 ‘조개’류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¹⁶⁾ ⑪ ‘甘菊花’도 ‘菊花’ 항목으로 모으는 것이 낫다. 그리고 ‘菊花水’는 ‘水’ 항목으로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다. ⑫ ‘甘爛水’는 처리하기 어렵다. ‘물’의 종류는 여럿 있어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어느 항목에 모을지가 문제이다. ⑬ ‘柑子’, ‘乳柑子’는 ‘柑子’가 어근이므로 ‘乳柑子’를 옮겨 오는 것이 낫다. ⑮ ‘甘蕉根’도 배열 순서상 뒤에 나오는 ‘芭蕉’ 항목으로 모으는 것이 좋다.

⑯ ‘船底苔 밧밑에긴잇기’와 ‘井中苔及萍 우물속의잇기’는 1차 정렬에 의하면 각각 ‘ㅅ’과 ‘ㅈ’ 항목에 배열된다. 하지만 이 어휘의 중심말은 ‘잇기’이므로 ‘ㅍ’ 항목에 모아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⑰ ‘江籬’는 ‘궁궁이썩’에 대응되는 다른 어휘도 나타나므로 ‘芎藭’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한편, ‘궁궁-’류 향약명 어휘들을 모아보면, ‘芎藭, 芎藭, 川芎, 藤蕪’ 등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고, ‘芎藭苗, 山川芎, 雀腦芎, 土川芎’ 등도 있어서 어느 쪽으로 모을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16) 『물보』 ‘슈虫’항에 ‘蚶 고막조개’로 나온다. 『표준』에서는 ‘고막’이 ‘고막’임을 지적하고 있다.

VI.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향약명 어휘가 보여주는 여러 국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향약명 어휘를 채집할 수 있는 문헌자료의 발굴과 이의 목록화 및 서지적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향약명 어휘의 총목록을 작성하고, 문헌별·시대별 자리매김을 하는 동시에 향약명 어휘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향약명 어휘 DB’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학제 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2) 표제어 구실을 하는 한어명과 고유어 향약명은 물론이고 단어족 개념을 적용하여 이칭까지 빠짐없이 채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15) 落蘇 茄子 本名 鄉救 目49-3
 落蘇 茄子根 鄉救 中18-2

‘落蘇’는 『향구』에만 두 차례 기록된 찾기 어려운 어휘이다. 15)는 ‘落蘇’의 본명이 ‘茄子’라는 것인데 아직 ‘落蘇’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알 수 없다. ‘茄子 一名 落蘇’가 아니라 ‘落蘇 本名 茄子’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표준』에도 ‘茄子’와 ‘가지’가 동의어로 되어 있지만 ‘落蘇’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면 북한에서 나온 『동의학사전』(16쪽)에는 표제어 ‘가지’에 ‘락소’가 동의어임을 적시하고 있다.

(3) 의서의 방문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16)은 홍재휴본 『촌구』의 방문에 나타나는 몇 안되는 한글표기이다. 이은규(1994b)에서는 이 책의 목록에 나오는 차자표기만 다루고 이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밝힌다(이탤릭체 부분은 필사된 것이다).

- 16) ① 鱒魚 응에 又名 △△△△ 一名 村救 6-10
 ② 鰻鱺魚 응에 又名 드렁허리 俗名 村救 22-5
 ③ 眞巢 촌깃 村救 20-3
 ④ 蚰蜒 진뒤 卽 村救 32-6
 ⑤ 壁鏡 납거미 卽 村救 33-2
 ⑥ 泄瀉 크크는병 村救 49-6

① ‘鱈魚’는 ‘드렁허리’로서 『훈몽자회』와 『동탕』 등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책의 예가 가장 빠른 것이 되었다. ‘웅에’는 『구급간이방언해』에 나오는 것으로 사전상 유일례였는데(21-2 ‘大鱈魚 큰 웅에’), 이 책에 나오므로써 유일례가 아니게 되었다.¹⁷⁾ ② ‘鰻鱺魚’는 ‘빅암장어’이므로 이는 분명한 오각이다. ③ ‘眞巢’의 ‘츄깃’은 ‘향약명DB’나 사전류에 보이지 않으므로 유일례로 판단된다. ④ ‘진뒤’는 ‘진드기’의 옛말이다. 『훈몽자회』에 따르면 ‘蠅’의 훈이 ‘진뒤’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진뒤’가 형태상 더 앞선다. ‘蝻’은 ‘그리마’이다. 따라서 이 책의 ‘진뒤’는 오각이다. ⑤ ‘壁鏡’은 ‘납거미’인데 『훈몽자회』 이후 의서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 책의 예가 더 앞선다. ⑥ ‘泄瀉’의 ‘즈끄는병’은 ‘즈끄는병’을 잘못 필사한 것이다.

(4) 향약명 자료에 대한 정밀한 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白薇’는 『향채』부터 나오는데 『춘가구급방』 이본들까지는 ‘摩何尊 마아존’으로 나오다가 『동탕』에서 ‘아마존’으로 바뀌어 현대 국어까지 이어진다. ‘ㅇ’과 ‘ㅁ’의 관각 차이가 전혀 다른 형태를 낳은 것이다(이은규, 1994b: 105 참조).¹⁸⁾

(5) 향약명 어휘 제시의 기본틀인 ‘X {지시어} Y {지시어} Z’의 X와 Y가 일치하는지를 검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 X와 Y가 다른 것이라면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국어까지 이어진 이칭들의 정확한 학명을 밝혀내야 한다. ‘百合’을 예로 들어 보자.

17) 百合	犬乃里花	俗云 郷救 目46-76
百合根	犬伊那里根	郷救 中18-76
百合	犬伊日	郷名 郷採 二月
百合	개나릿불취	救簡 2:111-7

17) 『표준』에서는 ‘鱈魚’와 ‘熊漁’ 모두를 ‘드렁허리’로 풀이하고 있다. ‘웅에’는 ‘웅어1’의 평북 방언으로 설명하고 있다. ‘드렁허리’, ‘웅어1’, ‘熊漁2’, ‘웅에’ 등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춘구』는 함경 방언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안병희, 1978: 199와 김주원, 1997: 33-34 참조).

18) 이런 현상은 한어명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춘구』에 나오는 ‘秦瓦’는 [진귀]로 읽히는 여러해살이풀이다. 『표준』에서는 ‘秦瓦[진교]’와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문헌에는 ‘秦瓦(『향채』), 秦瓦(『춘구』, 『춘가』), 秦瓦(『동의』), 秦瓦(『제증』), 秦瓦(『의종』), 秦瓦(『향성』)’ 등으로 기록되었는데, 『향채』나 『동의』처럼 ‘瓦[붕]’으로 잘못 적을 수 있다. 『표준』에서는 ‘秦瓦’을, ‘秦瓦 진봉 『물보 상:8』’을 들면서 ‘진교의 옛말’로 풀이하고 있다.

百合	犬伊日根	개나릿불휘	鄉名 村家
百合	백합		諺胎 45ㄱ
百合	개나리불휘		東醫 3:5ㄱ6
百合	개나리불휘		濟衆 8:9ㄴ4

17)을 보면 이전 시기 ‘백합’의 향약명은 ‘개나리’이다. 『동탕』 이후 문헌에는 ‘흰꽃기나리, 당기나리, 나리, 野百合, 참나리, 산나리, 호랑나리’¹⁹⁾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표준』에서는 ‘백합’을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학명이 ‘Lilium longiflorum’임을 적시하였다. ‘개나리’는 ① ‘물푸레나뭇과의 낙엽 활엽 관목’과 ② ‘들에 저절로 나는 나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두 가지를 동음어로 등재하고, ②의 학명을 ‘Forsythia koreana’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구급간이방』의 ‘개나리’는 ‘개+나리’임을 덧붙이고 있다. 다시 『표준』에서 ‘나리’를 찾아보면 ‘참나리’와 ‘백합’을 다의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리 = 참나리’의 학명을 ‘Lilium lancifolium’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13세기 중엽에 ‘百合’에 대응되는 고유어가 ‘*가히나리’였는지, 아니면 대응되는 가장 가까운 식물을 적은 것인지, 또는 오류인지 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6) 문헌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방언형 채집이 필요하다. 특히 한약재를 취급하는 현장의 방언형도 함께 수집해야 한다. 아울러 문헌어에 반영된 방언형에 대한 연구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향성』의 예를 보자.

- 18) ① 귀옹: 猪槽上垢及土 돼지귀옹에무든때와흙 鄉成 596-2
 ② 뒤간: 古厠木 오랜뒤간말정 鄉名 鄉成 649-1
 ③ 할꼬지: 銅弩牙 청동으로맨든할꼬지 鄉名 鄉成 600-1

① ‘槽’는 ‘귀옹’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표준』에 따르면 ‘귀옹’은 ‘구유’의 강원도 방언형이라고 한다. ② ‘뒤간’은 ‘변소’의 방언형으로

19) 눈에 띄는 것은 ‘당개나리’와 ‘호랑나리’이다. 『표준』에 따르면 ‘당개나리’는 중국이 원산지인 ‘당나리’와 동의어로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인데 학명이 ‘Lilium brownii’이고 이칭으로는 ‘권단(卷丹)’이 있다. ‘호랑나리’는 『표준』에 실려 있지 않다. 그런데 『三才圖會』(6:15ㄱ 草木)에는 “百合有三種一名檀香百合子可烹蒸食之益氣一名[]百合子可食花遲一月不甚香一名虎皮百合能殺人不可食都波不知耕稼土多百合取其根以爲糧”이라는 기록이 있어 흥미롭다. ‘백합’의 세 종류 중 ‘虎皮百合’이 ‘호랑나리’와 유래가 흡사한 듯하다.

널리 쓰이는 말이며, ③ ‘활꼬지’는 ‘활꼬지/활곳이’의 오기로 보이는데 ‘활고자’가 본말이다. 『표준』에서는 ‘활꼬지’를 ‘활고자’의 ‘복한말’로 설명하고 있다.

(7) 어휘론적 측면에서 형태소 분석이 정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형태가 여전히 많이 있다. 아래 예는 주로 『향성』의 것인데 그 의미 파악이 어렵다.

- 19) ① 굴때: 缸中膏 굴때에영킨기름 鄉名 鄉成 600-1
- ② 북짚미: 鷄窠中草 닭의둥우리속의북짚미 鄉名 鄉成 636-2
- ③ 말장: 古厠木 오랜뒤간말장 鄉名 鄉成 649-1
- ④ 옛보: 獐肉胞膏 품兒尼 오소리의고기와옛보의기름 鄉名 鄉成 668-1
- ⑤ 산므예: 白花蛇 산므예비암 東醫 2:12-10, 산므예배암 鄉名 鄉成 692-3
- ⑥ 덜분지: 人中白 오란덜분지미티얼원적 東醫 1:32-78, 醫宗 47-1
- ⑦ 수과: 猪鬃膏 돼지수과머리기름 鄉名 鄉成 665-3
- ⑧ 흙번: 鑄鐘黃土 쇠북부어낸흙번 鄉名 鄉成 595-1
- ⑨ 개댕이: 鑄鐸鉏孔中土 보습부을때개댕이속의황토 鄉名 鄉成 595-1
- ⑩ 뜰배질: 春牛角上土 뜰배질한쇠뿔에무든흙 鄉名 鄉成 595-2

(8) 향약명 어휘체계라는 인식과 단어족 개념에 입각한 어휘사 기술이 필요한데 그 열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20) 향약명 어휘사
 - ① 개별어휘사
 - ② 어휘체계사
 - ㉠ 분류체계(주제)별 어휘체계사
 - ㉡ 단어족별 어휘체계사

①은 개별 향약명 어휘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으로 어원론과 형태소 분석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②의 어휘체계사의 바탕이 된다. 또 향약명 어휘가 최초로 나타나는 시기, 형태의 변화 및 교체·소멸 양상과 이칭의 반사를 시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②㉠은 분류체계에 주제별로 어휘를 나누어 그 각각의 체계가 시대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기술하는 것이고, ②㉡은 개별 향약명이 보이는 단어족의 양상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했는가를 정리하는 것이다.

(9) 향약명 어휘의 분류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학제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의 분류어휘집 연구에서는 향약명 어휘의 분류체계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본초학이나 식물분류학과와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향약명 어휘의 분류체계는 21)과 같이 목록집마다 차이가 있다.

21) 향약명 어휘의 분류체계 비교

- ① 『향구』: 분류 없음.
- ② 『향채』:
一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 ③ 『동탕』:
水土穀人禽獸魚蟲果菜草木玉石金
- ④ 『향집』(1633), 『향성』(1924) 동일함.
石部上品 石部中品 石部下品 草部上品之上 草部上品之下 草部中品之上 草部中品之下 草部下品之上 草部下品之下 木部上品 木部中品 木部下品 人部 獸部上品 獸部中品 獸部下品 禽部上品 禽部中品 禽部下品 蟲魚部上品 蟲魚部中品 蟲魚部下品 果部上品 果部中品 果部下品 米穀部上品 米穀部中品 米穀部下品 菜部上品 菜部中品 菜部下品
- ⑤ 『제중』 권8 藥性歌: 분류 없음.
- ⑥ 『의중(附餘)』 藥性歌:
山草 芳草 隰草 毒草 蔓草 水草 石草 苔草 香木 喬木 灌木 寓木 苞木 葦辛菜 柔滑菜 蔬菜 芝朮 五果 山果 夷果 瓜果 水果 麻麥稻 稷粟 菽豆 造釀 卵蟲 化蟲 龍 蛇 魚 無鱗魚 龜鱉 蚌蛤 水禽 原禽 林禽 畜 獸 鼠 人 水²⁰⁾ 土 金石
- ⑦ 『방합』 損益本草目錄: 『의중』과 동일함.

『향구』는 아쉽게도 분류를 하지 않아 이른 시기 분류체계 양상을 알 수 없다. 『제중』 역시 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 『향채』는 ‘약재 채취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2월과 12월에 해당하는 향약명이 가장 많다. 『동탕』과 『향집』 그리고 『의중』은 동물·식물·광물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하위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동탕』은 거시적 분류만, 나머지는 미시적 분류까지 하고 있다. 『방합』은 『의중』과 동일하지만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향약명의 가짓수는 다른데, 이런 점도 설명되어야 한다. 『의중』은 향약의 약성이나 식물 분류학적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20) 『방합』에서는 ‘水’에 해당하는 표제어 ‘臘雪水’ 아래 ‘立春雨水, 雹, 夏水, 半天河水, 甘爛水, 井華水, 溫泉, 地漿, 百沸湯, 生熟湯, 漿水, 長流水’ 등 13개의 물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은 『의중』도 마찬가지이다.

다. 『향집』과 『향성』은 약재의 품질을 기준으로 가장 세밀하게 하위분류하고 있다. 분류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향약명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도 확인되는데, 이런 차이도 인접 학문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10) 어원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정확한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인데 음운론적 형태 확인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22) ‘橡實’ (이은규 2009: 504)

橡實 猪矣栗	[13세기] 향구 목48-13
도토리	[16세기] 훈몽 상11-1
굴근도토리/참나무	[17세기] 동의 3:40-10, 한청 13:24-14
도토리	[18세기] 방유 4:22-14
상술리	[19세기] 물보 12:3
상소리	[19세기] 의종 33-10, 방합 334
상수리/참나무 상수리나무	[20세기] 자석 172:3, 식휘 119
加邑可乙木實 떡갈나무열매	[20세기] 향성 651:3

22)를 보면 『두시언해』에 ‘도톨밤’이 보이지만, ‘상수리’형이 나타나면 서 의서에 ‘도토리’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차자표기 ‘猪矣栗’은 *도티밤으로 재구되고 ‘도톨밤’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猪矣栗’의 ‘猪’는 단순한 훈차표기가 아니다. 현대 방언의 ‘꿀밤’의 ‘꿀’이 ‘돌’과 연결된다. 민은숙(1982: 37)에서도 ‘꿀밤’이 ‘돼지(꿀꿀이)의 밤’이라 하였고, 홍윤표(2009: 111-115)에서도 ‘돼지’와 관련지어 ‘도토리’의 형태·의미 변화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11) 13세기부터 나타난 향약명 어휘가 현대 국어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전 시기 문헌에 나타나는 향약명이나 한어명과 많은 이칭이 『표준』에 등재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은규(2009)에서 지적하였듯이 20세기에 오면서 향약명의 이칭이 급증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1)-(10)까지의 연구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VII. 맺음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향약명 어휘에 대한 연구를 돌아보고, 향약명 어휘 DB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제시하였다. 주요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첫째, 향약명의 개념은 단순히 ‘한어명에 대응되는 고유어’가 아니라 ‘의서를 중심으로 한, 처방과 관련된 텍스트 혹은 목록에 나오는 약재를 가리키는 고유어나 한자어와 같이 포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의서의 향약명 제시 형식을 분석함으로써 밝혔다.

둘째, 향약명 어휘군을 우리말 어휘체계상으로는 생활어와 일상어의 하위 범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뚜렷한 어휘 범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그간의 향약명 어휘연구를 주제별로 개괄함으로써, 연구가 차차 표기의 해독과 일부 어휘의 변천과정 기술, 형태 분석 시도 등에 한정되어 어휘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향약명 어휘의 전모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개별어휘사나 어휘체계사의 기술은 시작 단계에 있고, 학제 간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술하였다.

넷째, 향약명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향약명 어휘의 DB 구축이며, 이때의 DB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어야 함을 제시하고, 일부 자료를 대상으로 실제 DB 구축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DB는 의서의 향약명과 그 밖의 국어사 문헌자료에 산재된 이칭자료를 집적한 것으로서, 어휘 변천과정과 개별 어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단어족 개념이 적용된 정보화된 DB’임을 보였다.

다섯째, 앞으로 어휘체계로서의 향약명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인 의서의 발굴, 의서 방문의 정밀한 재검토, 심화된 향약명의 형태론적 분석과 어원론 기술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학제 간의 연구를 통한 한어명과 향약명의 정확한 대응관계를 밝혀야 하며, 방언형의 채집과 향약명 어휘의 분류체계도 검토되어야 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향약명 어휘가 현대 국어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기술도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앞으로의 향약명 어휘 연구는 필히 ‘물명류’ 연구와 연대하면서 향약명

어휘의 총목록 작성을 시작으로 제 학문 분야와 함께 공동 연구의 길을 가야만 그 체계를 온전히 세울 수 있으며, 나아가 향약명 어휘의 개별어휘사와 어휘체계사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유리, 『『구급간이방언해』와 『동의보감 탕액편』의 약재명에 대한 비교』.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권영배 외, 『『본초정화』 ‘인부’에 대한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1-2, 한국한의학연구원, 2005, 1-22쪽.
- 김남경, 『『구급간이방언해』의 서지와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_____, 『구급방류 언해서의 국어학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동소, 『한국어의 역사』. 정립사, 2007.
-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79.
- 김두찬, 「차자표기 향명의 통시적 연구-향약집성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김문오, 『『동의보감 탕액편』 소재 고유어 어휘의 조어법 연구』. 『언어과학연구』 18, 언어과학회, 2000, 49-82쪽.
-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김영신, 『『구급방언해』 상·하의 어휘 고찰』. 『수련어문논집』 4, 부산여자대학교, 1976, 133-164쪽.
- 김원표, 「『비[酒]』와 『쌀[米]』의 어원에 대한 고찰』. 『한글』 104호, 한글학회, 1948, 165-169쪽.
- _____, 「『누에[蠶]』의 기원과 그 어원고』. 『한글』 108호, 한글학회, 1949a, 468-480쪽.
- _____, 「『보리[麥]』의 어원과 그 유래』. 『한글』 107호, 한글학회, 1949b, 404-407쪽.
- 김유범, 『『언해태산집요』의 국어학적 특징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2009, 173-210쪽.
- 김종학, 「향약문헌에 나타난 약재명 어휘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_____, 「향약 약재명 어휘의 변천고』. 『어문논집』 22,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91-114쪽.
- 김주원, 「구개음화와 과도교정』. 『국어학』 29, 국어학회, 1997, 33-49쪽.
- 김홍균, 「『본초정화』의 해제에 관한 의사학적 접근』. 『한국의사학회지』 24-2, 한국의사학회, 2011, 25-55쪽.
- 김홍석, 『『향약채취월령』에 나타난 향약명 연구(상)』. 『한어문교육』 9,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1, 87-107쪽.
- _____, 『『향약채취월령』에 나타난 향약명 연구(중)』. 『한어문교육』 10,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2, 93-115쪽.
- _____, 『『향약채취월령』에 나타난 향약명 연구(하)』. 『한어문교육』 11, 한국언어문

- 학교육학회, 2003, 133-151쪽.
- 남광우, 「향약채취월령 해독 고찰」. 『국어학논문집』, 일조각, 1962, 411-424쪽.
- 남성우, 「『창진방촬요』의 동의어 연구」.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2011, 7-57쪽.
- 남풍현, 『차자표기법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86.
- _____, 「『향약집성방』의 향명에 대하여」. 『진단학보』 78, 진단학회, 1999, 171-194쪽.
- 민은숙, 「향약 명칭의 이두표기와 어형변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박지연, 「문헌별 한약 ‘약명’ 사용 양상 연구」. 『어문학』 113, 한국어문학회, 2011, 25-71쪽.
- 방종현, 「향약명 연구」. 『일사 국어학논집』, 민중서관, 1963, 90-114쪽.
- 백승창, 『『물명고』류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성환갑, 「『창진방촬요』의 한자음 연구」. 『논문집』 25, 중앙대학교, 1981, 233-261쪽.
- _____, 「『창진방촬요』의 어휘 연구(Ⅰ)」. 『인문학연구』 21, 중앙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4, 3-32쪽.
- 손병태, 「『우역방』의 이두문 연구」. 『한민족어문학』 16, 한민족어문학회, 1989, 409-420쪽.
- _____, 「『춘가구급방』의 향약명 연구」. 『한민족어문학』 17, 영남어문학회, 1990, 73-112쪽.
- _____, 「경북 동남방언의 산채류명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19, 영남어문학회, 1992, 239-259쪽.
- _____, 「『향약채취월령』의 약재명 어휘에 대하여」. 『외골 권재선 박사 화갑논문집』, 간행위원회, 1994.
- _____, 『향약 약재명의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송창선, 「마경초집언해의 어휘 연구」. 『경산어문학』 1, 경산대학교 국문과, 1995.
- 신경철, 「물명고의 어휘 고찰」. 『한국언어문학』 25, 한국언어학회, 1987, 41-66쪽.
- 신영일,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복원 및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신진희·신용욱, 『향약집성방의 향약본초』.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신중진, 「『연경제전집』에 실린 〈稻벼〉 곡물명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2, 한양대학교동아시아 문화연구소, 2012, 83-118쪽.
- _____, 「동아시아 인문학의 계보학-곡물명 수록 어휘 자료집의 계보와 그 어휘 목록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54, 한양대학교동아시아 문화연구소, 2013, 67-95쪽.
- _____, 「『연경제전집』에 실린 잡곡명에 대한 어휘체계사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6, 한양대학교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101-134쪽.
- 안대현, 「『창진방촬요』의 서지와 언어」. 『국어사연구』 7, 국어사학회, 2007, 71-

105쪽.

- 안덕근, 『향약채취월령』.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3.
- 안병희, 「양잠경험촬요와 우역방의 이두의 연구」. 『동양학』 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7, 3-22쪽.
- _____, 「『춘가구급방』의 향명에 대하여」. 『언어학』 3, 한국언어학회, 1978, 191-199쪽.
- 여찬영, 「우리말 동물 명칭어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13, 대구가톨릭대학교, 1990, 1-28쪽.
- _____, 「식물 명칭어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7,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91, 11-33쪽.
- 연규동, 『근대국어 어휘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옥영정,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조선간본과 그 배경」. 『서지학보』 40, 한국서지학회, 2012, 175-196쪽.
- 원순옥, 「『구급방언해』의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유재영, 「이름 표기의 고찰-『구급간이방언해』를 중심으로」. 『선오당 김형기 선생 팔질 기념 국어학논총』, 창학사, 1985, 293-310쪽.
- _____, 「물명의 한 연구 - 『동의보감』 탕액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연구』 12, 원광대학교출판부, 1987, 1-45쪽.
- 윤장규, 『『향약채취월령』의 국어학적 연구: 차자표기음과 한·중 한자음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윤혜정, 「『언해구급방』의 어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경미, 「남북한 한의학 전문용어 비교-국역 『향약집성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기문, 「13세기 중엽의 국어 자료」. 『동아문화』 1,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63.
- _____,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1991.
- 이덕봉, 「향약구급방의 방중향약목 연구」. 『아세아연구』 6-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339-364쪽.
- _____, 「향약구급방의 방중향약목 연구(완)」. 『아세아연구』 6-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169-217쪽.
- 이덕호 외, 「『본초정화』 초부 향약명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1-1, 한국한의학연구원, 2005, 1-18쪽.
- 이병근, 『어휘사』. 태학사, 2004.
- 이유기, 「마경초집언해의 어휘 연구(1)」. 『한국어문학연구』 4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 이은규, 『『향약구급방』의 국어학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_____, 「향약명 차자표기 해독상의 몇 문제」. 『국어교육연구』 26, 국어교육연구회, 1994a, 133-157쪽.
- _____, 「『촌기구급방』 이본의 차자표기 비교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9,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94b, 91-128쪽.
- _____, 「『향약구급방』 차자표기 용자례」. 『소곡 남풍헌 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1995, 333-384쪽.
- _____, 「향약명 차자표기의 통시적 연구(1)」. 『어문학』 57, 한국어문학회, 1996, 257-279쪽.
- _____, 「소창문고본 『우역방』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36, 국어교육학회, 2004, 171-190쪽.
- _____, 「향약명 어휘의 변천 연구」.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2009, 475-520쪽.
- _____, 「구급방류 의서의 병명 번역 양상」. 『한국말글학』 27, 한국말글학회, 2010a, 77-119쪽.
- _____, 「필사본 『두역신방』의 국어학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55, 언어과학회, 2010b, 191-216쪽.
- _____, 「『구급신방』의 어휘 분석」. 『한국말글학』 28, 한국말글학회, 2011a, 169-227쪽.
- _____, 「『백병구급신방』의 어휘 연구」. 『민족문화논총』 4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b, 253-278쪽.
- 이철용, 「운역에 관한 의서의 국어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화』 9, 한국언어문화학회, 1991, 127-160쪽.
- _____, 『의약서 어휘의 국어사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a.
- _____, 「동의보감 이본들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20,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2b, 5-39쪽.
- 임지룡, 「국어 분류어휘집의 체제와 상관성」. 『국어학』 19, 국어학회, 1989, 395-425쪽.
- 장영길, 「동국대 경주도서관본 『언해두창집요』에 대하여」. 『불교어문논집』 9, 한국불교어문학회, 2004, 121-137쪽.
- _____, 「『언해두창집요』의 회귀어 고찰」. 『어문학』 87, 한국어문학회, 2005, 235-252쪽.
- 정우영, 「『신신태을자금단』의 국어학적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8, 동악어문학회, 1993, 67-104쪽.
- 정태현 외, 『조선식물향명집』. 조선박물연구회, 1937.
- 정혜린, 「『백운신방』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관악어문연구』 34, 서울대학교 국문과, 2009, 231-256쪽.

- 조성오, 「향약채취월령의 차자표기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채인숙, 「17세기 의서 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최미현, 「『언해태산집요』에 반영된 한자음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새얼어문논집』 19, 새얼어문학회, 2007, 127-145쪽.
- _____, 「『구급간이방』에 반영된 한자음의 변화 양상」. 『우리말연구』 22, 우리말학회, 2008, 83-108쪽.
- _____, 「『동의보감』 탕액편에 반영된 한자음 연구」. 『한말연구』 24, 한말연구학회, 2009, 267-286쪽.
- 최범훈, 「고려시대 차자법 연구-『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한국학논고』, 통문관, 1976a, 329-344쪽.
- _____, 「고려시대 차자법 연구(2)-『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연민 이가원 박사 송수기념 논총』, 범학도서, 1976b, 367-382쪽.
- _____, 「고려시대 차자법 연구(3)-『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성봉 김성배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1976c, 163-176쪽.
- 최영순, 「『마경초집언해』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최중호, 「『언해태산집요』의 약재명 한자음 연구」. 『한말연구』 22, 한말연구학회, 2008, 317-348쪽.
- 하동호, 「『동의보감』에 보인 국어 어휘고」. 『열мна 이용호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논문집 간행위원회, 1987, 119-149쪽.
- 허재영, 「국어 어휘 분류체계의 역사적 흐름」. 『겨레어문학』 48, 겨레어문학회, 2012, 431-460쪽.
- 현평호, 「‘나물’ 어사에 대한 어원적 고찰」. 『제주도』 37, 1968, 180-189쪽.
- _____, 「제주도 방언에서의 ‘나무’와 ‘나물’ 어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논문집』 7·8,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69, 19-35쪽.
- 홍순탁, 「『향약구급방』 어사고」. 『호남문화연구』 2, 전남대학교, 1964, 61-73쪽.
- _____, 「혜암십서 방약합편색인」. 『한국언어문학』 3, 한국언어문학회, 1965, 143-154쪽.
- 홍윤표, 『근대국어 연구(1)』. 1984, 태학사.
- _____, 「국어 어휘 문헌자료에 대하여」. 『소당 천시권 박사 회갑기념 국어학논총』, 간행위원회, 1985, 747-773쪽.
- _____,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 1993, 태학사.
- _____, 『살아 있는 우리말의 역사-어떻게 다르고 언제부터 생긴 말일까』. 태학사, 2009.
- _____, 「『치종비방부언해(治腫秘方附諺解)』 해제」. 『한국어연구』 9, 한국어연구회, 2012, 181-193쪽.
- _____, 「『물명고』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 진단학회, 2013, 167-211쪽.

_____, 「국어 어휘사 연구 방법」. 『2013년 겨울 구결학회·국어사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구결학회·국어사학회, 2014, 9-36쪽.

황선엽, 「명아주(藜)의 어휘사」. 『국어학』 55, 국어학회, 2006, 213-238쪽.

_____, 「금단의 꽃 양귀비」. 『문헌과 해석』 43, 문헌과해석사, 2008.

_____, 「“강아지풀(莠)”의 어휘사」.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2009, 421-446쪽.

橘井清五郎, 「韓板 郷藥救急方」. 『서지학』 6-6, 東京: 汲古書院, 1936, 210-219쪽.

三木榮, 『朝鮮醫書誌』. 학술도서간행회, 1956.

森爲三, 『朝鮮植物名彙』. 조선총독부학무국, 1922.

小倉進平, 「本草綱目啓蒙に引用せられたる朝鮮動植礦物名」. 『靑丘學叢』 10, 1932, 108-213쪽.

_____, 「郷藥採取月令及ひ‘郷藥集成’に現はれた朝鮮語動植礦物名 解釋 補遺」. 『靑丘學叢』 14, 1933, 84-95쪽.

王圻, 『三才圖會』(영인본). 성문출판사유한공사, 1607.

국 문 요 약

어휘론의 입장에서 향약명 어휘군을 하나의 어휘체계로 설정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뚜렷한 어휘 범주를 형성하는 향약명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논의의 초점은 향약명 어휘 DB 구축과 앞으로의 연구 내용 제시에 두었다.

향약명의 개념은 ‘한어명에 대응되는 고유어가 아니라, ‘처방과 관련된 텍스트 혹은 목록에 나오는 약재를 가리키는 고유어나 한자어’와 같이 포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향약명은 국어 어휘체계상 생활어와 일상어의 하위 범주로 그 위상이 정립될 수 있다.

국어학 영역에 한정해서 볼 때, 지금까지의 향약명 어휘의 연구는 차자표기의 해독과 일부 어휘의 변천과정 기술, 형태 분석 시도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향약명 어휘에 대한 어휘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여, 어휘론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은 물론 개별어휘사나 어휘체계사의 기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학제 간 연구도 향약명과 관련된 제 학문 분야가 연구의 초점을 각자의 학문적 성격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류를 통한 공동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향약명 어휘의 DB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이 DB는 ‘있어온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모든 향약명 자료를 집적한 것으로서, 통시적 변천과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단어족 구성이 실현된 ‘정보화된 DB’여야 한다. 그리고 개별 어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긴 DB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화된 향약명 어휘 DB를 기반으로, 향약명을 담고 있는 문헌의 발굴과 향약명 어휘의 집대성 그리고 향약명 어휘의 총목록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서의 목록과 방문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 작업과 개별 향약명의 형태소 분석과 어원론적 분석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휘별 이칭자료도 빠짐없이 수집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동시에 학제 간의 연구를 통해서 한어명과 향약명의 정확한 대응관계를 밝혀야 하고, 방언형의 채집과 향약명 어휘의 분류체계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작업을 거쳐서 개별어휘사와 어휘체계사가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런 작업은 이제 특정 학문 분야만의 과제가 아니며, 학제 간 공동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투고일 2014. 9. 24.

심사일 2014. 10. 31.

게재 확정일 2014. 11. 26.

주제어(keyword) 향약명(Hyangyak Terminology), 의서(Medical Book), 향약명 어휘 DB (Hyangyak Terminology Database), 어휘의 변천(Diachronic Change of Vocabulary), 어휘체계사(History of Lexicon System), 어휘사(History of Word)

Current Status of Research and Tasks on Traditional 'Hyangyak' Terminology

Lee, Eun-kyu

From an angle of lexicology, based on the realization that establishing Hyangyak terminology as a sort of vocabulary system is needed, this paper set a goal on looking back at the studies on Hyangyak terminology that forms clear lexical class, and predicting direction of research in the future. The focus of discussion is to build database on vocabulary of Hyangyak terminology and suggest future research contents.

The concept of Hyangyak terminology is not only the native Korean that correspond to Sino terminology. It needs to be reestablished comprehensively as a native Korean or Sino Korean that indicates medicinal ingredients which appear in the prescription and its related text or category. The status of Hyangyak terminology can be founded as subclass of daily word and everyday language according to Korean vocabulary system.

Limiting to Korean linguistics,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no study so far made an attempt over decoding borrowed Sino characters writing, description of some vocabulary change process, and analyzing morpheme etc. In consequence, lexical systemic approach was not made on Hyangyak Terminology. So lexical analysis was not profoundly, and a description on history of word and lexicon system is still in the beginning step. Also, interdisciplinary study could not be accomplished due to each Hyangyak terminology-related academic field limited research focus on academic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In the future studies, constructing Hyangyak terminology database is urgent. This database should be composed of things for 'future research' but at the same time, it should reflect 'past research results.' In other words, the database should be an information-oriented DB which includes all Hyangyak terminology data reflecting diachronic change process and word family composition. It also should include all information on individual vocabulary.

Based on information-oriented Hyangyak terminology database, digging documents with Hyangyak terminology, compilation of Hyangyak terminology vocabulary, and cataloging Hyangyak terminology vocabulary should be preceded. Also, precise reexamination of medical book catalog and prescription, morpheme analysis and etymological analysis on individual Hyangyak terminology should be accomplished systematically. Data on another name should be collected and included, too. At the same time, accurate corresponding relation of Sino terminology and Hyangyak terminology should be identified, and collection of dialectic form and Hyangyak terminology vocabulary class

system should be reviewed through interdisciplinary study. History of individual word and history lexicon system should be described in this process. Surely, these work are not a task of one particular academic field. It can be accomplished through interdisciplinary study only.